新興 - 1931. 07. 05.

# 헤겔百年祭와『헤겔復興』

申南澈

第一, 序論的考察
第二, 生의哲學에잇서서의헤-겔復興
第三, 칸트學派에잇서서의헤-겔復興
第四, 結　　語

## 第一, 序論的考察

一

나는머리말로「헤-겔과우리들과의中間에잇는」(엥겔스)「포이엘밧하」의말을다음에적겟다.

「哲學이라는것은實在性의終末에生하는것이아니라,實在性과가티始作된다. 이것은單只自然的인, 即事態에適應한, 그리고참된道程이고, 피히테以後의思辯哲學의方法과는一致되지안는다. 精神이感性에쏫는것이고, 感性이精神에쏫는것은아니다. 精神은事物의끝일지나처음은아니다. 經驗에서부터哲學에의過渡는必然性이나, 그러나哲學에서부터經驗에의過渡는奢侈한恣意(Luzuriäse Willkühr)이다. 經驗과가티始作되는哲學은永遠히설므나,그러나經驗과가티끗막는哲學은, 마침내考朽하야生命업고, 제自力에倦怠를늣길것이다. -그럼으로結局, 經驗과가티끗나는哲學은無限히經驗과가티始作되는哲學이다. 後者는늘思惟의스토푸를가지고, 前者는悟性의推理에서出發한다. 實在性업는思想으로始作되는哲學은짜라서無思想한實在性으로끗막고만다.」(註1)

*　　*　　*

지금哲學界의世界的토픽은, 今年十一月十四日의헤-겔百年祭를眺望하며나아가는 그의體系에對한再吟味와究明인긋시프다. 그러나그헤-겔百年祭에集中하고잇는, 지금의敎養잇는社會層의興味는, 果然如何한意味와, 方向指數를가지고잇는가. 今世紀의初頭인, 一九〇五年十一月二十三日伯林學士院에서朗讀되고, 翌年四月二十四日에出版된썰타이의「헤-겔의靑年時代傳」(Jugendgeschichte hegels)을처음잡아, 헤-겔에對한關心이日復日增長하야지

다가, 一九一〇年빈델반드가「헤-겔主義의再興(Die Erneuerung des Hegelianismus)이란題로講演함을契機삼아, 哲學界에잇서서는(特히獨逸哲學-더욱觀念哲學界에잇서서의) 헤-겔과의問題的關連이, 設使그것이卽接的이거나, 間接的이거나, 論議되게된것은, 반듯이究明되지안으면아니될課題이고, 또그들사이에잇서서, 그가치 웨 헤-겔에對한問題提起가必然的이엿든가도, 생각하여보아야할課題이다. 더구나쎌타이를中心잡아, 遠心的環狀을그리고잇는生의哲學에잇서서「헤-겔・루네쌍스」가唱道케된原因은무엇이엇스며, 또그社會的背景은어써하얏든가. 헤-겔左黨이古典哲學을引繼한正當한「엘빈」으로써自身을揚棄轉化한辨證法的唯物論에잇서서의, 헤-겔의問題와, 그歷史的及社會的인必然的歸結은, 上述한觀念論的諸体系와如何한關連을保持하고잇스며, 또同一히헤-겔을云謂하면서도, 푸로레타리아의世界觀으로서의辨證法的唯物論이쑤르조와哲學에잇서서의, 헤-겔에對한問題와서로그歸趣를달리하는理由와根據는어데서어써케차저볼것인가.

以上의提起된問題는實로尨大하고困難한, 仔細한觀察과正確한論究를要請하는問題다. 理論의進行이推理를媒介하야發展할쌔, 흔히는全體性-背後의規定者를忘却하는局部的陷穽에抱泥되고만다. 더구나, 現今에잇서서獨逸哲學이라고云謂하는,諸體系를考察할쌔, 그러한흠점이업다고할수업다. 그들의分析과記述, 理解와把握이如何히洗鍊되고穿鑿되야잇다고할지라도, 勿論그點 에잇서서感服, 鰲暎을마지아니하기는하나, 그러타고그것의全體的意義와價値를우리들의欲求하는批判實踐的, 全體反省的, 現實理論的企望에對比하야, 同日而論之하지는못할것이다.우리는그方法과體樣을攝入하기는할것이다. 그러타고그것은決코그것의全的肯定은되지못할것이다. 우에말한「헤-겔・루네쌍스」의諸問題도이러한見地에立脚한提示라야, 비로소그것의正當한理解를齎來할것이다. 그럼으로現今哲學徒들의입에膾炙되는所謂「헤-겔・루네쌍스」가單只, 헤-겔이一七七〇年八月二十七日스롯트갈트에서나가지고, 一八三一年十一月十四日伯林에서六十一歲로써, 그의人生行路를마친그동안-佛蘭西大革命의前夜로부터, 나포레온의에나城陷落을지나, 七月革命뒤에「루이, 필립」이「人民의맨든王」으로서王位에오르기까지의동안에, 격거온精神과方法의復興이라면, 그것은우리의지금論議하는問題에서, 써나기먼것이다. 웨그러냐하면, 헤-겔의生存한時代와우리들의世代와는달를샌만아니라, 싸라서헤-겔의社會的被規定性도우리의그것과갈름으로이다. 卽「헤-겔復興」이單只「헤-겔復興」인限, 그것은現在에잇서서는, 不可能하고, 싸러서眞正한意味에잇서서의「헤-겔復興」이되지못할것이다. 그러나 「헤-겔復興」을오직헤-겔의体系의精神內容의一航的理解에둔다고한다하더라도, 그것은決코完全한意味에잇서서의「헤-겔復興」은되지못

할것이다. 爲先「헤-겔復興」은「헤-겔的精神」-辨證法的發展의必然的一過程으로서의-에依한現實的出發이라야만할것이다.

* * * *

「헤-겔復興」은爲先「革命하는心臟과, 改革하는頭腦」(註2)의, 社會的政治的問題에對한必然的適用에서生한, 그의全哲學的体系의發展的方向이라야만하겟다. 그리하야哲學은實在性에서始作되야, 그實在性의變化消滅發展의諸契機를統一的으로把握하는, 換言하면, 歷史成立의基礎部分에對한豊當한現實的具体的內容을包括한歷史의知識哲學的解明을任務로하지안으면아니될것이다. 싸라서그곳에는觀念態에對한現實態의先行的關係가成立되고, 實踐은理論을介하야强化되고, 그리하야觀念態의現實態에對한副次的性質이認識될것이다.(註3)

「헤-겔復興」에對한多大한關心이現在各國의哲學界를廣捲하고잇는것가트나, 그本質的究明과歷史의知識哲學的解釋은아직-아니아무도한것을보지못하얏다. 더구나하인리히,레비의「헤-겔復興」에對한見解가튼것은到底히以上의나의企望에符合되지안을뿐만아니라, 그의헤-겔解釋도果然, 眞正한「헤-겔復興」의精神下에 企圖된바인가를疑心하지안을수가업다.(註4) 또中央公論三月號에發表된, 三木淸氏의「헤-겔復興과그方向」에잇서서도그維列的紹介는問題삼을것도업거니와, 該論文末尾에잇서서의맑스主義에對한三個의課題는, 「헤-겔復興」과, 맑스主義에關連하야注目할提示이라고생각하나, 그것도單只提示에局限되얏고, 그것에對한詳細한展開는보여주지안엇스니, 더云謂할餘地는업스나, 그러나그의人間學的「하이덱가」的辨證法解釋及맑스主義에對한새롭은「쎄그룬둉」이果然이三個의提示를어찌結末지을는지後日의그의論述을보지안코는臆斷을不許하는바이다. 되리어三木氏보다는三枝博音氏의「헤-겔死後百年祭의意義」(註5)에나타난, 그의헤-겔解釋에서必然的으로맑스主義理論에까지發展할, 그의언더커렌트는, 헤-겔을헤-겔精神에잇서서素直하게解釋하는듯하다. 또「理想」第二十二號「헤-겔死後百年記念特輯」이라던가, 國際헤-겔聯盟日本版(岩波書店) 百年忌記念「헤-겔과헤-겔主義」等의諸出版이「思想史上에잇서서當然히또永久히第一流의一地位를占할사람」(註6)을爲하야그의死後百年인今日에續々出版되는것은반듯이, 이偉大한「헤-겔的高塔의놀랄만한著作」(註7)을 單只다시한번檢素하려고하는것은아니여야된다. 그러나, 그出版物에담긴內容이어써한것인가는, 나의이拙論이進行됨을싸러스스로表示될줄로안다. 허나 먼저말하야도조흔것은國際헤-겔聯盟을中心삼아論議되는「헤-겔・루네쌍스」는, 到底히우리들의意味하는바「헤-겔・루네쌍스」가되지못하리라는것이다. 何如間나의이小論이果然이課題를正當하게파헤집어볼수잇슬는지-나는나의力量에부치는것임을먼저告白하지안을수가업다.

註1, Feuerbach, Såmtliche Werke, Bd. 2, S.232."Ueber den Anfang der Philosophie."

註2, do., a. a. O., S.259. "Vorlaeufige Thesen zur Reform der Philosophie."

이곳에서포이엘밧하는心臟과頭腦, 革命과改革, 停止와運動을對立식혀論하고잇다. 그러나그의期待하는哲學及哲學者는其中의 한아만을가진것이여서는안된다. 獨逸人父와佛蘭西人母와의사이의子息만이好良한哲學的氣質을享有한다고한다. 이것을우리는比喩의析衷的見解라고一言之下에指彈하고말것인가. 決코그러치안타고생각한다. 頭腦를思惟라고할것가트면, 心臟은踐實에빅이겟다. 理論업는實踐은盲目이고, 實踐업는理論은空虛하다. 칸트의有名한命題에서分枝한이러한名題를오직二元論的見解라고만拒斥할진댄, 헤-겔에잇서서의歷史的心理的의것 과 論理的理性的의것이 多에잇서서의一이엇고, 一에잇서서의多가아니엿든것, 싸라서全體를貫通하는一垂線에體系的으로關聯되야잇는것을說明하기어려울것이다.이러한意味에잇서서, 나는「革命하는心臟과改革하는頭腦」의社會歷史的全體性에對한關連을忘却하지안으련다.

註3, 나는「歷史의知識哲學的解明」을本文에서指示한것과가티理解하려고한다. 여긔에知識哲學이라고하얏다고, 그것이볼싸노流의純粹論理的眞理問題에對한「自體」(An-Sich)의問題라든지 또는, 피히테의自我의定置(Setzen)에對한他我의反置(Entgegensetzen)를 自我의原本的純粹活動에서演譯하는知識理論的哲學과는 그類緣이全無하다는것을말하야둔다. 나의意圖하는 歷史의知識哲學的解明又는把握이라는것은, 歷史의尨大한無限性은 왼갓階級的社會性을內包하고 싸라서歷史는論理學이라든가存在論이라든가 또現象學이라든가의現在의努力을保持하고잇는哲學界의諸潮流의根底에서嚴然히그것의存在의根據를主張한다는것이다. 別言하면歷史哲學은왼갓理論的學問에先行하야, 그것의立場의可能을 쎄레흐텐하고 이어서모든知識의限界와妥當을規定하는胎盤이라고본다. 그러타고 이歷史의知識哲學的解明은 決코아무리오리의問題를提出하는것은아니다. 웨그러냐하면, 지금論議하는歷史는現實的인우리들의生動한世界를云爲할것임으로-. 그러한世界에서우리는否定으로統一된貫通하는原理를본다.

註4, Heinlich Levy, Die Hegel-Rtnaissance in der deutschen Philosophie 1927. 칸트 協會發行哲學流說集第三十卷.

註5, 帝國大學新聞 第三八四-五號. 今年五月十一日, 十八日付.

註6, 쑤레하노푸, 史的一元論附錄「헤-겔六十年忌에際하야」用內唯彦譯.

註7, Heinlich Levy, a. a. O., S24

## 二

그러면現在各國의知識層들이多大한關心을가지고잇는헤-겔死後百年祭에關한計劃은어써한가. 나는「헤-겔・루네쌍스」를말하는限「國際헤-겔聯盟」에言及하는必要를늣긴다. 이國際헤-겔聯盟(Der internationale Hegelbund)는昨年四月二十二日부터同二十五日까지의사이에和 蘭하-그에서開催된, 最初의헤-겔會議(Der crste Hegelkongress)에서創立된것으로서, 歐洲各國의著名한

헤-겔硏究者들이叅集하야十九個條의規約을設定하야「헤-겔的精神에잇서서의哲學硏究를促進함」으로써그目的을삼고그第一步를내듸듸게된것이다. 그第一同헤-겔會議에잇서서進行된順序를보면, 議長이든킨더만의開會辭가잇슨뒤

一, 킬大學크로너敎授의第一回國際헤-겔會議의開催에對한演說.

二, 로마大學칼로제로敎授의伊太利에잇서서의헤-겔哲學의現狀과理解에대한報告.

三, 옥스퍼드大學알렉산더, 스미드敎授의英國哲學에對한헤-겔의影響.

四, 하에델베르히大學글록크너敎授의獨逸에잇서서의헤-겔哲學의現狀과理解에對한報告.

五, 파리大學코야레敎授의佛蘭西에잇서서의헤-겔硏究의現狀에對한報告.

六, 하-그텔더스의和蘭에잇서서의헤-겔哲學의現狀과理解에對한報告.

七, 푸라-그大學치세브스키敎授의스라부民族에잇서서의헤-겔.

八, 쐬팅겐大學쎈더敎授의權利로서의自由.

九, 쎄네콤의헷싱의思惟로서의自由.

等의演說이擧行되얏든것이다.

이제이會議에對한「하인리히,레비」의見解를보건대『國際헤-겔聯盟의組織的會合은그것의全面相을決定하얏다. 그리하야이聯盟은爲先, 그것의存在와그것의現實性을쎄그룬덴하지안으면아니된다. 超時間的意味에잇서서, 永遠한哲學(philosophia perennis)인헤-겔哲學을이푸로그람은될수잇는데까지表明하얏다. 此等의討究는「自由의哲學者」로서의헤-겔을, 이會議의主題로마련하얏든것이다. 헤-겔聯盟이그것의作用을그時代에放送하야, 各國의헤-겔學徒及헤-겔接近者를包括하랴고하는點에잇서서, 그것은벌서헤-겔主義가現代에잇서서어든意識의普及을將來하려는欲求이다. 이會議는두가지要求를解決하려고하얏다. 그러나그것의實踐的目的에依하야明白한것가티, 第二의要求에그의優先을認定하지안으면아니된다. 그리하야헤-겔의自由哲學(Freiheitsphilosophie)은두가지方向에잇서서表示되는것이니, 即「權利로서의自由」(Freihelt als Recht)와「思惟로서의自由」(Erciheit als Denken)의두가지演說이그것이다.』 (註1)……이레비의말은所謂「헤-겔・루네쌍스」에잇서重要한役割을할랴고하는國際헤-겔聯盟에對한한개의批評인同時에, 그의헤-겔解釋에對한一端을우리는窺知할수잇다고생각한다. 그러나레비가云謂하는것과가튼意味에잇서서, 「헤-겔・루네쌍스」는그方法과方向을保持할것인가.「헤-겔・루네쌍스」는-지금쑤르조아哲學陣營內에서喧傳되야잇는것과가티, 果然헤-겔精神의現代에對한事象의解釋根據를提供할것인가. 지금의問題되여잇는「헤-겔・루네쌍스」는그目的과指標가, 意識的이든지, 無意識的이든지, 如何間그것은모다, 헤-겔의美名下에맑스

主義를修正, 改變하려는底意를가진것이나아닌가생각한다. 지-그푸리드, 말크의「헤-겔主義와맑스主義」가, 맑스主義를素朴實在論이라고指彈함으로써, 헤-겔의辨證法을그것과는全然無緣한素朴實在論의形而上學의地盤에移植하얏다(註2) 고喝破한炯眼에對하야는, 니콜라이・할트만이, 辯證法은先驗的方法과協同結合함으로써 비로소有効하게作用하고, 先驗的方法이哲學的思考法에잇서서優先權을占한다(註3)고일컷든그의일은時代의생각과相拒하기머지안타. 「헤-겔・루네쌍스」를「國際헤-겔聯盟」의이름아래서組織化强力化하려고하며, 싸러서「헤-겔의辯證法을採用은하나, 그러나思辯的形而上學的內容을排斥하려고하는, 이批判的辯證法의方向」(註4)이어씨思辯的辯證法에對立하야 그正當함을「徹底」하게主張할수가잇슬가. 그들이一方으로思辯的形而上學的要素를拒否排斥하면서, 他方으로現象的存在論的思辯의境地로移入함으로써, 헤-겔에잇서서의因有한重大한革命的契機를忘却하고잇스니, 이것이, 그들의이른바「헤-겔・루네쌍스」의正體라고하지안을수가업다. 헤-겔은自身을自身의것으로써否定하는契機를가지고잇다. 그否定의必然的結果는辯證法的唯物論이다. 왼갓社會的具體的事象을攝取整制하는實踐的飛躍的定界를, 그들은不問에附하거나曖昧化하려고한다. 設使無意識的이라고하드라도 그것은節制업는市民哲學의레악치오네르한한개의畸形이아니면아니될것이다.

이제다시레비의見解에도라가보건대, 그는이「헤-겔・루네쌍스」의運動을,「生氣潑剌한運動」으로써規定하고, 그리하야헤-겔精神에잇서서의哲學은, 헤-겔硏究와가티, 現代의緊切한諸問諸에서, 그것의活氣를얻지안으면아니된다고한다. 그리하야現代의緊切한諸問諸는그것의眞正한揚棄에서自身의固有한기픈意義에싸라 自身을確證할것이라고한다.勿論現代의緊切한諸問題는우리에게그揚棄와確證을催捉하야마지안는다. 그러나, 그러타고「헤-겔哲學의實體性(그들의理解하는)이, 獨逸, 佛蘭西, 英國, 伊太利, 和蘭等諸國에잇서서의헤-겔哲學의現狀과理解가튼, 現代의數만흔, 헤-겔主義의現象相에依하야正히活動할」것인가. 이『여러가지現象相은國民的又는超國民的運動에依하야交錯한歷史에依하야, 또는그歷史와는決코單純히平行지하안는哲學的問題의發展에依하야, 쓰트로는個々의哲學者의自意的出現에依하야多少間規定은된다.』(註5)그러타고今日헤-겔主義의成立에對한여러報告者들의陳述이許容될것인가. 레비는그들의報告가現在各國에잇서서의헤-겔運動의傾向을헤-겔理解의새롭은性格에서認識하리라고말하얏다. 그리고그것의歷史的形態에서理解하는것이, 더重要하다고하얏다. 勿論이點에異論은업다. 그러나그보다더重要한것은歷史運行의原動力되는事物間의諸關係이다. 그이는이것에까지생각하야파나려가는意圖를가지지안엇고, 또가지랴고하지안는것이다. (모든觀念的이데오로그들의하는것과가티). 그

쑨이랴, 그들의理解하는歷史는理念의發展을云爲하는것이거나또는, 直觀, 槪念, 抽象等의加工作用以後의遊離된허수아비가튼存在이다.

이에『헤-겔聯盟의內部에잇서서의千差萬別인見解의合一을積極的으로評價하랴고하면, 그것은오히러正確深切하게헤-겔을理解하고, 그리하야그의精神에잇서서, 或은그의依하야施肥하야哲學하랴는努力의表現일것이다.』(註6)그러나그들의千差萬別의見解가百年河淸이나되지안을지疑向이다. 그들이헤-겔聯盟을組織하기에이른動機와時代的背景에는, 必然性이伏在함을쌔노치안으나, 그러나그들의各人各樣의個人主義的任意의解釋과敷衍은, 늘그個人의世界에局限되고말것이다. 그러나그들은, 이헤-겔聯盟으로말미암아, 그들의任意의思索的離隔에서團體的으로計劃的으로同一한目標를指向하는一敎養層을造成하얏다는點에잇서서別個의意義가잇다. 이聯盟은徃古二千五六百年을두고生起消滅한數만흔學派와그歷史的背景과社會的意義가一人의偉大한思想家의밑으로聚立한다는點에잇서서는, 同一할는지모르나, 特히一方에푸로레타리아獨裁의國家가戰鬪的唯物論의世界觀밑에서, 「앙상, 레즘」에對하야勇敢한挽歌를부르고잇는쌔에잇서서는, 그意義가若干懸殊함을看取하지안코는아니될것이다. 그懸殊한點이라는것은, 쉽게말하면「앙상,레즘」의揚棄者에對한反動的役割이라는것이다. 풀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가希臘의思想을完成한뒤로最近에이르기까지, 이二人의思想家는交互하야各時代에그들에게對한歸依者를가지엇든것이다. 그리하야互相盛衰를달리하얏든것이고, 풀라톤이一時代에迎合되얏다가도, 그次代에잇서서는, 아리스토텔레스的精神이擡頭하얏다는點에서「헤-겔復興」의旗人발은, 그것과一沫의共通性을가지고잇다. 아니獨逸理想主義哲學이, 헤-겔의分裂에서, 散之四方하야 (엥겔스의말과가티辯證法的唯物論은그것의正當한後繼者이라할지라도-)그歸趣를모르다가 「칸트에도라가라」의슬로강이處々에서외처진뒤로, 哲學界는한동안多岐한收輯을어든것가텃스나, 또한社會的條件의變動으로말미암아그自體의內部에서破壞가生하자, 그들은그들의世界觀的欲求를어데서求하야볼가하고彷徨하얏다. 이제그들이一方에선巨大한建設의武步를옴기고잇슴을보면서도, 그들의反動的存在는歪曲된「헤-겔精神」에의復歸-(Rueckehr zu Hegel) 을, 한 개의聯盟의形態下에서외치게되얏다.

리브만, 랑게等의 “Zuerulck zu Kant"가一九二四年四月二十二日, 칸트生誕二百年祭를最後로, 新칸트主義의思想內部에는幾多의自己破壞의契機가爆發하야, 現象學的方法의勃與을보드니, 不過幾年을經하지못하야 ”Rueckehr zu Hegel"이외처지게된것을볼쌔, 우리는走馬燈가튼思潮의干滿을보며, 또그干滿의被規定性을錯雜한現實的關係에서보는것이다. 흘러서마지안는思想及그의背後者의變移하는體相을볼쌔, 더구나그變移하는體相에잇서서의人的關係를생각

할쌔, 우리는必然을늣기는同時에自由를呼吸한다. 웨, 헤-겔의이른바와가티必然의認識은自由임으로써다. 이必然과이自由下에서營爲되는人間的鬪爭, 思惟, 革命, 詩, 眞理, 道德, 感官的活動等의왼갓것은, 社會生活의內的矛盾과그것에依存한觀念態의深奧한境地를提供한다. 이것들이深奧한境地를提供하니만치, 有閑한社會層들은그것을그것自體로써누리랴고한다. 쑨만아니라, 그들은그들의그享樂에서나아가서反作用을베푸는수가徃々잇다. 이것은顚倒된헤-겔의再顚倒이다. 하물며, 헤-겔의純粹한法律哲學的見地에서보면그것은되리어쑤부러진邪道에의脫線이다. 이脫線은修理되기어렵다. 그러나全然不可能한것은아닐것이다. 이脫線의修理者는經濟學的原理일것이다. 市民社會의解部는經濟學에서그原理를, 求하지안으면안된다는經濟學批判의序文을引用하지안는다고하여도, 이點에對한나의見解가正鵠을이를危險은업스리라고생각하눈바이다.

「헤-겔復興」이라는것이, 如上한根據下에眞實한世界觀的欲念을우리에게持來하지못할것은理解하기어렵지안으나, 그러타고그것을全的으로無視不顧할것은아니다. 되리어우리는그것을吟味, 檢素함으로말미암아, 그本質을究明하지안으면아니될것이다. 더구나그것을硏究海石함으로말미암아, 우리의志向에對야寄興함이잇고, 또그不足에對야補助를提供하고, 우리들의理論的根據에對하야參考가된다면, 우리는나아가서, 그것에積極的으로參與하는度量도잇슴적하다. 그러나이「헤-겔・루네쌍스」가果然우리의이러한雅量에이바지하는바잇슬것인가. 今年十月十八日日曜에伯林에서開催되는헤-겔會議는, 昨年에創立된國際헤-겔聯盟과伯林大學의哲學敎授, 다른伯林居住의有志들이合同하야, 헤-겔의最終居住地인伯林과그의굿세인影響을記念하기爲하야, 國際헤-겔聯盟의主催와大學敎授, 諸官衙, 社會團體及市民層의有志들이代表하는同聯盟伯林支部의後援下에擧行되게되얏다(註7). 이會議에對한우리들의興味는크지안을것이아니나, 이會議의푸로그람을볼쌔, 우리는如前히一種의不足을늣기지안을수가업다. 아무커나, 그들에게잇서서는當然한일이라하지안을수가업다. 政府의支援下에開催되는것이니, 그本質은自明한것이라고하지안을수업다. 이제그順序를보건대-

一, 十月十八日日曜밤에는參集者가一堂에會合하야創立記念式을열고.

二, 그翌日午前에는開會演說이잇고, 다음으로는二十一日水曜까지헤-겔哲學에對한演說이잇다.

1, 싸이리(레-쓰), 精神現象論의意義.

2, 헷싱(쎄네콤), 辯證法의本質.

3, 칼로제로(로마), 헤-겔論理學의問題.

4, 위거스마(할렘), 헤-겔의自然哲學.

5, 싸엘(할레), 헤-겔과數學.
6, 치세브스키(쎄-링겐)헤-겔과言語哲學.
7, 라렌쓰(쇠팅겐), 헤-겔과民法.
8, 글로크너(하이델베르히), 헤-겔의哲學體系에잇서서의美學.
9, 볼프(함부록), 헤-겔과섹스피어.
10, 락손(쎌린), 헤-겔의宗敎哲學.
11, 그텐쎌(킬), 希臘哲學에對한헤-겔의見解.
12, 크로너(킬), 헤-겔과現代.
이以外에도다른演說者를어들랴고한다니그數는씀씩할것이다.

以上의諸演題가表示하는것과가티, 그들의各個別的部門에關한詳細徹底한硏究는, 아무커나그獨自의價値와意義가잇슬것은不誣할事實이나, 그들은칼을오직날카롭게하기爲하야, 만힘드려가는것이고, 무엇을버히는데에쓰랴고그칼을가는것은아니다. 이點에辯證法的唯物論의琢磨, 檢討, 批判되여가는過程과는그使命의判異함이스스로나타난것이다.

三, 演說이進行되는사이에는每日文部省의招待와晩餐會等等이잇다는것이다. 이第二回 헤-겔聯盟의會議가헤-겔百年忌를轉機삼아그自體안에서또무슨變動이생기지안코, 그것을永久히헤-겔精神에依한다는美名下에持續한다는것은되리어反헤-겔的精神일것이다.

註1, Logos Band XIX, Heft 3 1930 S. 419
註2, Siegfried Marck, Hegelianismus und Marxisams
哲學論叢, 奈良岡雄讀書, 二一頁-二二頁
註3, N. Hartmann, Systematische Methode,
橘高倫一譯書, 九〇頁-一三二頁
註4, 理想「헤-겔復興」號, 리햘드, 크로너, 「現代에잇서서의헤-겔哲學의意義」
註5, Logos 前揭號, S. 422
註6, Logos 前揭號, S. 423
註7, Logos Band XX, Heft 1. 1931, 에씨인헤-겔會議의招待狀에는今番百年祭에對한 詳細한計劃이실려잇다.

## 三

上述한바와가티「헤-겔復興」은, 單只헤-겔的傳統의復興이어서는아니된다. 그런데헤-겔主義의再興을꾀하는이「生氣發剌한運動」이意外에도魅惑的興味를이끌게된데對하야서는그理由가잇서야할것이다.

『헤-겔의境遇에잇서서도칸트의그것과가티, 世代의變遷과가티 그承認의變遷을當하고잇다. 더구나그以上極端으로當하고잇다. 己往에는全世代를드러感

激히受容되얏고, 그뒤로는輕蔑, 忘却, 嘲笑를밧든그가 지금에는다시强한影響을줄랴고새로히이러나는것가티보인다. 日復日그의哲學에對한學問的勞作이增加하고, 伯林圖書館에오래동안死藏되얏든書籍에서, 그의發展이硏究되야조흔結實을가저오고, 그의書冊은새로히出版되야, 일즉이는싸게살수잇든그의全集이지금에는價値잇는, 古物이되얏다.』(註1) 그러나, 現代의哲學이헤-겔을素直하게理解하고잇는가는나의後日의課題려니와, 맑스의所謂헤-겔을「죽은개」로取扱하든六十年代의獨逸의哲學界와가티, 現今의헤-겔理解가果然妥當한「헤-겔精神」에依한理解이며, 把持일는지一個의疑問인채로남어잇지나안은가?, 아푸리오리의認識論이나, 純粹意識의現象學等이熱心으로그地步를닥고가는듯이보이다가昨年에「헤-겔聯盟」의成立을突然히(勿論우에도말하얏지만씰타이의「헤-겔의靑年時代傳」에서부터, 그淵源은始作되얏다고하겟스나-) 哲學界와는그리因緣이업는하-그에서보게된것은一奇異라고하면할수잇스나, 그外的으로왼갓破局을격고잇는現今의社會에서, 헤-겔의革命的方法에歸依하야그들의末路를救하야보랴고하는趣向은, 設或그것이空虛한스코라哲學的方法에서始終한다하더라도, 그곳에는現代的意義가多分이伏在하야잇슴을볼것이다. 直觀, 明證, 純粹를그學問的依據로하는現象學이, 形式論理的主知主義에서神秘觀-無限히洗鍊된緻密한一種의神秘觀으로逃亡하야, 科學的, 實踐的, 歷史的認誠을放棄한點에, 前進하는歷史의齒車는到底히, 그것에滿足할수업섯든것앤. 自然的態度를排除하야純粹意識에到達하고그리하야그것의「노에마」,「노에시스」的理念的構造를分析記述햇댓자, 그것은, 끗끗내意識過程에對한部分的硏究이고, 그意識過程의周圍를分析記述하는全體性的硏究에서멀리써러저잇는것이아닐가? 『全體性은辯證法의一範疇이다. 다만辯證法的思惟만이, 社會에잇서서의現實의總體를認識할수가잇다.「觀」(Schau)에依하야서가아니라, 思惟에依하야, 綜合觀에依하야서가아니라, 對立의統一과鬪爭과를把握할수잇는 全面的辯證法的思惟에依하야, 全面的인現實은그無限한多樣性에잇서서, 그豊富한內容에잇서서, 그具體的形態에잇서서把握된다.』(註3)

그럼으로合理的觀念論의固定的討究가아무리精密하다하드라도그것은到底히, 流轉하는現實的諸形態에日常뒤써러지고말것이明白하다. 그리하야焦燥와不安을가지고無爲轉行하는것이다. 이것은그것自體의性質上그리되지안을수가업다. 合理와非合理가서로角逐하는동안, 어는결에社會는恐慌과發展을直面하고, 새로운形態에의飛躍을바라보고잇다. 辯證法的思惟는合理와非合理와를揚棄하고克服하야, 새段階에다다른다. 그러나形式的合理的認識論的思惟는그자리에서踏步롯을부르고잇다. 流轉發展하는努力, 과固定不動하는觀念이, 어

써한問題를우리에게줄것인가. 그것은明白하다. 辯證法的唯物論은連綿한否定揚棄의建設的努力이다. 헤-겔精神의새삼으럽은復興을絶叫할餘地가업는自體完成的社會的原理이다. 그自體內에잇서서의機械論的要素를(誤解되면)不斷히除去하야나아가는것도, 그것의本質上그리지못하고는못박이는必然的事實이다.헤-겔復興을論議하는事實그自體가벌서, 그自身의過去한社會的, 歷史的役割을表明하는것이되지안을가? 獨逸의哲學界가지금헤-겔에의復歸를부르고잇는이事實은, 獨逸의近世의哲學的潮流가廣義의懷疑的傾向을가지고잇다고볼수잇다. 이巨大한懷疑論의지나가는자리를보살필째, 그內部에잇서서는無數한丘陵屈曲이隆起하얏스나, 畢竟은社會的要素의過小價評及理念的工作의主重으로 (그들은그것을眞正한哲學이라고생각하얏다)부터의結果는大同小異하얏다. 倦怠窮乏에서늘새로운무엇을涉獵하지안코는못견듸엿다. 그러나이巨大한懷疑論은懷疑論의不成立을證明한다. 「코기토」의純粹한反省은다시自身에게反省을加함으로말미암아, 懷疑論의成立되지안음을證明하얏스나, 그러타고그證明이吟味를要하지안는完全한것이될것인가?, 나는저有名하다는, 그것에서훗셀이그의現象學을出發식힌 Cogito ergo Zum 의明證性을의심하지안을수가업다. 形式論理的立論下에서는果然그것은自明한境地이다. 그러나그立場을써나, 아니實踐的具體的「나」의存在에서볼째는, 懷疑論은“Cogitatum-Cogitatio”라는算式, 換言하면, 思惟된物件(das Gedachte=Cogitatum)에서思惟作用(Das Denken=Cogitatio)를빼낸것의實踐과의關係에잇서서만論破된다고생각한다. 이가티哲學의眞正한命題는實踐에서解決될것이다. 그리하야「헤-겔・루네쌍스」도그것이實踐을問題視하지안는限, 그것은다시在來의巨大한懷疑論에編入될性質의것이라고나는생각한다.(註3) 그러나빈델반드는『헤-겔에의回歸는確實히一種의健康回復이다. 그리하야이回歸가, 넷날의헤-겔主義의不思議한淺薄과, 形而上學的輕率에서써나잇슬것가트면, 이回歸는그使命을遂行할것이다.』라고하얏다. (註4) 勿論그의이假言的命題가定言的命題로確定된다면, 지금의云謂하는「헤-겔루네쌍스」는確實히一種의健康回復일것이다. 그러나우에서도말한바와가티, 헤-겔의思辯的形而上學的境地에서써나또다시다른一種의思辯的境地로드러가는運動이나되지안는지終合問題된채로남어잇는것이다.『그러나이한가지는最後로말하지안을수가업다. 우리들의서잇는激烈하고情熱的으로分裂된精神的狀態에서, 소리노픈無數한소리로서行爲와意志의哲學을要望하는叫聲이우리에게向하야들려온다. 진실로理解하기어려운自己僞瞞에잇서서, 이러한哲學은自己自身으로부터그것의理性價値를求하든지, 理解하려고하지안코立法的으로새로히生出할것을바라고잇다. 이活動에對할째는, 헤-겔哲學이世界에잇서서의

理性을極히個個의點에미츠기까지理解하야槪念的으로지버내서取扱할것을힘씀에當하야良心的인眞摯에의沈潛은-大한者에서부터나아와思惟하는것일지라도, 小한者에對한이勞苦잇는硏究者의歸依의再興은單只深切하게敎育的作用을가짐에지나지안을것이다.』(註5)헤-겔의辯證法的方法에對하야不滿을가젓든빈델반드 (註6)의이評言은아마우리들의理解하는것과는다른意味에잇서서, 서로一致하는點을發見할것이다.

註1, Windelband, Die Erneuernng des Hegelianisn's. Heidelberg, 1910. S. 5-6

註2, 白楊社版, 맑스主義-. 第二年第三號, 포가라시論文

註3,「實踐」의問題에對한吟味와그規定에關하야는, 짜로히論할機會가잇슬것이다. 이곳에서, 그것에對한表示를故意로回避한것은以上의理由에依함이다. 그리고「巨大한懷疑論」이라고한것은어마나의粗荒한言表일는지모르나, 獨逸念觀論의哲學이헤-겔에서싯막고彷徨의狀態를持續하다가 "Zueruck zu Kaut"에서 "Raeckehr zu Hegel"까지의 過程을살피어볼때 그것은可憐한多岐變轉이얏다. 그리하야나는廣義의包括的意見下에서그러한發表를가저왓다.

註4, Windelband, a. a. O., S. 7

註5, do., a. a. O., S. 15

註6, do., ebenda.

## 第二, 生의哲學에잇서서의「헤-겔復興」

### 四

나는이때까지「헤-겔復興」에關한事實的序述及, 獨逸哲學에잇서서의그것의一般的趨勢에對하야若干의考察을試하야왓다. 이제나는더그個別的事實을追究하야, 나의序論的論述에對한「쎄스텔켄」을어더보려한다. 그러나나의이論述이緩慢에흐를念慮가업다고하지못할것이니, 그것은어써튼避치못할事實이라고생각한다. 웨그러냐하면, 나의企圖한바그것의性質上, 그互相間의錯雜한關係는一目瞭然한摘要的構造를가진것이아님으로이다.

* * * *

하이리히・레비에依할것가트면, 十九世紀中葉以來沈滯하여간헤-겔哲學이, 同世紀의最後十年頃부터다시生動的興味의對象이되얏다는事實, 그리하야이事實의證左가될만한것은다음의三個의事實이라고한다.(註1) 卽

一, 形者上學的宏大한現實指示의思想이, 獨逸一般의精神生活에잇서서큰反響을發見해낸事實.

二, 特히獨逸哲學에잇서서, 以前에잇서서는헤-겔의思想과對立하야잇든思潮가, 그硏究의進行함을따러, 次第로헤-겔의學說에接近하야왓다는事實.

三, 싸라서헤-겔의哲學이, 그것의眞理內容째문에硏究된다는事實及, 그의根本思想의眞理性이새로히알려저왓다는事實.

이三個의事實은또廣汎하고混雜한問題關係를藏하고잇는것이니, 即

A, 一般的精神史的

B, 內在的哲學史的

C, 兩方面哲學史的

D, 最後로純粹하게體系的哲學的인性格을藏하고잇다

그런데, 이네가지의廣汎複雜한問題關係를다시드려다볼째

A, 世界觀으로서와가티, 論理的建築의記念으로서, 百年前에는獨逸精神生活의全盛期를特來하고, 이精神生活을同時에支配하야結實케한이哲學, 表面上(筆者傍點, 事實表面上, 더구나一部의局限된部分에잇서서)半世紀동안이나沈滯해잇든이哲學이지금에는全혀變改된文化的構造及面貌를가지고, 새롭은生活에나타나여왓다는事實은, 如何히理解되여야하고또그것은무엇을指示하는것이냐?

B, 헤-겔體系의以前의力의源泉에까지溯及하는文化史的硏究에서써나, 한개의內在哲學史的, 即問題史的考察에잇서서, 헤-겔의分析과解決의굿세인綜合-이點에잇서서헤-겔哲學의部分問題가隆起하고改造되야, 遂히헤-겔類似한學說이새로發展한-이如何히하야衰退햇느냐하는것은理解될수잇는일이냐?

C, 그리하야헤-겔哲學의現代에對한, 特히現代哲學에對한意義는如何히評價될것이냐? 이点에저거도, 사람이헤-겔哲學에對하야價値만타고看注하는것에關係하는精神史的又는問題史的相違가잇다.

D, 最後로가장重大한問題, 헤-겔哲學의眞理內容의問題, 特自의體系的問題이다. 만일헤-겔이比較할수업는方法으로서그의體系에眞理性에의最高要求를確定하려고하얏슬것가트면-그러나그럼에도不拘하고, 歷史그것은그要求를, 헤-겔이그의體系에附與한바形態에잇서否定하얏슬것이니-어데서, 그러면그의眞理性은成立하고, 그리하야如何히그眞理性은保證될것인가?

레비의問題提起는以上과가트다. 그리고그의問題提起의方式도大體로正當하다고하겟다. 그러나, 그는 『헤-겔哲學의巨大한組織을, 그것의全體性에잇서서硏究하려고하는것이, 吾人의지금의問題가아니다. 이「헤겔・루네쌍스」라고하는規定된領域에잇서서限定하랴고하고, 그리하야哲學史的인者(Das Philosophiegeschtliche)는.그것에對하야가장適合한것이라생각킨다. 이点에잇서서, 「헤겔・루네쌍스」의問題는한개의目標를갓는듯하다.』고한点은甚深한吟味를要求하야마지안을것이다.

大體,「哲學史的인者」의本質을究明하지안으면아니될것이다.그의이른바問題

史(Prol　lemgechichte)原理史(Prinzipiengeschichte)가哲學史의材料로서, 旣히槪念의形態에서存在하는 「哲學史的인者」를確證함으로말미암아, 한 개의文化運動의反映을發見하고, 싸라서스스로이運動의自己自覺에까지向上할수잇다는것, 그리하야「헤겔・루네쌍스」에屬하는思想家가解決하려고하는, 體系的問題에接近할수잇다는見解는, 나의上來말하여온, 歷史의具體的知識哲學的理解와어써한關聯을가지고잇는가.나는이点에對하야서는오직다음의한말로써規定하련다. 『헤-겔에잇서서는, 眞理라는것은一旦發見만되면두구두구墨守하려는, 旣成의여러가지 獨斷的命題의收集이아니다. 眞理는認識其自體의過程가운데서, 科學의긴歷史的發展의사이에잇는것이고……歷史도또한認識의境遇와가티人類의完全한理想的狀態에서完結하는것이아니다』라는말(註2)이그것이다. 原理史, 問題史가規定하는 「哲學史的인者」의哲學史라는槪念的形態그自體가벌서, 歷史的過程中에發見된具體的眞理性에依하는것이니, 萬一그러치안타고할것가트면, 「哲學史的인者」의成立할場所를어데서어써케차저볼것인가? 歷史의過程中에서生起하는具體的認識은그것이認識으로써, 다른繼起的認識의先行的條件이되려면은그것은强히知識的이라야할것이다. 다시말하면論理的純粹性을保持하여야만할것이다. 맑스主義도, 그歷史的事實의把握에잇서論理的純粹性을忘却하야서는, 그것이强調하는「科學的」이라는前置形容詞를使用할수업슬것이다. 나의云謂하는「知識的」이라는것은純粹한意味에잇서서의「科學的」과그共通된因子를抽象할것가트면서로零일것이다. 兩者는同一視하야도조타. (註3)

이가티레비의 「哲學史的인者」의「헤겔・루네쌍스」의領域에잇서서의局限된課題는, 設或그것이豊富한材料와精確을要求한다하드라도, 그것은全혀우리에게問題發展의必然的命數를가르처주는것이되지못할것이다. 그러나「헤겔・루네쌍스」의多岐的面相은部分的으로나全體的으로나, 反헤-겔的位置及素性에서부터, 헤-겔의立場에接近하야오는二個의主流로區別됨을보겟다. 卽『로고스에對하야完全히透徹하지못한生의哲學과, 生에서써난理性의哲學은同一하게, 生의哲學과理性의哲學의헤-겔的綜合의길을거러갓다.』(註4)이두潮流의헤-겔에의接近을表示하는것은事實, 레비의말과가티巨大한困難한事業이다. 헤-겔에의歸趨는各思潮의差異에도不拘하고, 所謂新헤-겔主義의發展可能性의多樣을明示하얏스니, 이것은明白히이巨大한懷疑論의辯證法的唯物論에의姑息的, 消極的接近을表示하는것이아닐가?

以上의問題內容을가지고, 「헤-겔루네쌍스」에對하야이즐수업는三個의演說이擧行되얏든것이다. 即, 쎄올그랏손의「헤-겔主義는무엇이냐」, 하인리히숄쓰의「現代의哲學的思惟에對한헤-겔哲學의意義」과 지그푸르드말크의「헤-겔

主義와맑스主義」가그것이다. 이演說은勿論, 「헤-겔루네쌍스」에對한機運을催促하얏스리라. 이제나의論明하려는生의哲學에잇서서는헤-겔復興은어데한形態의것이얏든가-.

註1, Heinlich Levy, Die Hegel-Renaissance in der deutschen Philosophie S. 5-8

註2, 佐野文夫譯 포이엘밧하論 同人社版十六頁-十七頁

註3, 이點에잇서서, 나는더머물을餘裕를가지지못하얫다. 나의云爲하는「知識的」은決코「合理的」과는가트지안타.「科學的」은「知識的」의具體的面相이다.

註4, 헤-겔의靑年時代哲學은다아는바와가티生의哲學이얏다. Heinlich Levy,a.a. C., S. 6

## 五

御來의哲學的見地, 傳統에서볼것가트면, 十九世紀後半의文化的性向은, 헤-겔의影響에서事實멀리써러저잇섯다. (레비도이러한意見의所有者이다. 그러나他方으로맑스와엥겔스를中心으로한, 헤-겔精神的文化的性向을忘却하지못할것이다-.) 『그리하야, 그支配的思潮는精神的世界에서, 即, 참된全體性의問題에서써나, 平凡한自然主義的, 實證主義的, 歷史主義的, 相對主義的이얏고, 精神的思潮는粗笨한唯物論과物活論이되얏다.』(註1)고하는惡口는, 그러타고生의哲學이나, 理性의哲學이나에서일커러지는所謂「헤-겔・루네쌍스」는얼마더哲學的이얏든것을말하는가? 나는爲先順序에싸러生의哲學에잇서서의「헤-겔復興」을이곳에서槪觀하여보려한다.

이곳에니체를쓰집어내는것이좀이상하기는하나, 그의超人間的「權力에의意志」(Wille zur Macht)는헤-겔과一脈의共通되는点을가지고잇는듯하다. 니체와헤-겔의왼갓對立에도不拘하고, 니체의「헤라크리트主義」는헤-겔과는매우써러저잇는것가트면서도서로接近하야잇는것가트다. 그리하야兩人도根本에잇서서, 同一한課題를보고잇는듯하다. 即, 왼갓그의對立及矛盾을가진具體性全體性의把握, 永遠히自己自身을創造하고 (Ewig-sich-selber Sehaffen), 永遠히自己自身을破壞하는 (Ewig-Sich-Selber-zurstären)洒神씌오니소스의世界-니체가「權力에의意志」最後의節에서말한바와가치-는그것이다. 니체의思惟方法의本質은, 辯證法과는멀다. 그의世界問題의價値論的解明은(Axiologische Lösung)畢竟헤-겔에잇서서는, 왼갓否定과가티世界의特徵的肯定이다. 그리하야. 니체自身도 「權力에의意志」 에잇서서굿세인말로, 헤-겔의獨逸哲學에對한意義를認定하고잇다.

이, 니체와, 헤-겔과의意外의連絡이잇는것만치, 오히려니체를,레비의意見에조칠것가트면, 精神史的으로又는問題史的으로다만間接이기는하나, 注意할

作用의媒介者로써,「헤-겔・루네쌍스」에編入하려고할것이다.(註2). 니체의哲學은先驗哲學이라고하는것보다는, 헤-겔의哲學이고, 精神生活을意識的으로蔑視한生의哲學이고또反合理主義이다. 허나이 「酩酊의비틀거리는발」(Racchantische Taumel)을自我意識及헤-겔에固有한「로고스」의嚴密한淘冶로써淨化한다는것은容易한일이아닐것이다.

이에反하야生의哲學의有名한代表者윌헬름・썰타이(1833-1911)의「헤-겔・루네쌍스」에잇서서의位置는實로重要하다. 그도헤-겔에잇서서와가티精神的世界를硏究하얏다. 即, 歷史的文化에잇서서의精神的世界, 精神의生(Leben des Geistus)을半世紀동안이나두고, 꾸준히硏究하얏든것이다. 그에게잇서는처음부터끗까지, 歷史的世界가哲學의最重要한對象이얏다. 그의「精神科學」은이것을任務로한다. 그만치그에게잇서서의歷史問題는우리의究明理解하려는歷史問題와는그範疇가다르다. 그러나그의歷史的事實에對한認識의方式은, 在來의理念的方式과는달라, 現實實在性에對한阻止와抵抗에서生動한生의意識을얻는다는点에서實在論的要素를攝入할수잇다. 썰타이의見解는,「헤-겔・루네쌍스」의問題에對하야큰興味를준다. 實로그는헤-겔的問題領域을(레비에依할것가트면)反헤-겔主義의時代에잇서서널피고또豊富하게하얏다. 事實그의「헤-겔의靑年時代傳」은思辯的, 論理的으로헤-겔을解釋하려는, 말하자면피히테的헤-겔解釋이次第로그勢力을일코, 그時代의社會的事件의變移에따라規定되는思想을헤-겔에서차저보려는意圖를喚起하얏다고볼수잇슬것이다. 勿論相對的意味에잇서서이고一般的考察에서이다. 썰타이가헤-겔을「生의哲學者」더구나그의靑年時代의生命的, 流動的, 殉情的, 要素를高調하려고한裡面에는勿論辯證法的諸範疇가豊富多樣하게時代精神的運動을하고잇섯든것이다.

『正히一七八八年으로부터一七九三年에이르는年間에, 啓蒙의時代를完成하는同時에, 또새時代의門戶를여른두개의世界史的事件이이러낫다. 即, 칸트에잇서서獨逸的思惟의變革이遂行되고, 革命이佛蘭西에잇서서, 넷國家를破壞하고새社會制度의建設을장만하얏다. 感激으로써이들두靑年-헤-겔과쉘링은, 이두가지의將次現出하려는偉大한世紀의가장힘세인宣言을把握하얏다.』(註3) 革命은그들에게, 獨逸人의政治的無關係로因하야, 이驚天動地의大事件에對하야傍觀者的態度를가지게하기는하얏스나, 그러나그들은熱心히이것을硏究하얏고또크게感動을어든것이다. 그러나썰타이의理解한헤-겔의이러한態度는그의「헤-겔・루네쌍스」에對한部分的課題는될는지모르나, 그의遺稿에서發見되는헤-겔과의現然한離脫은, 도리어眞正한헤-겔精神이理解者가되지못함을證明하는것이되지안을가. 그는헤-겔의難點을指摘한다.그러나또한『具體的精神

界의意味解明의問題의共通性에依하야 그는,헤-겔論理學의根本思想의永久한價値充實을認定하얏다.』(註4) 그러나特히씰타이의헤-겔의形而上學과發展思想에對한反對에도不拘하고精神의哲學(Philosoplie des Geistes)-그價値判斷에잇서서씰타이의헤-겔的要素가明白히된-은그에게自然한것이얏다. 웨그러냐하면헤-겔의「精神의哲學」은, 씰타이의「精神科學」과同一한範疇에屬하는(換言하면, 헤-겔의「理性的」과씰타이의「意志的」이設或그것의內在的連繫에잇서서, 具體的現實에對한絶對降下的抽象的法則과, 現實을그잇는대로그것의不動하는場所에서合理化하려는消極的規定의差異는잇슬망정) 思惟的絶對者像想하는論理임으로이다. 勿論헤-겔의眞正한革命的要素는, 그것이發展轉化하야實踐的唯物的世界觀에까지이르럿스나, 「헤-겔・루네쌍스」에로合流한諸潮流를檢討하야보면, 그것은大槪가헤-겔의形而上學的, 絶對理念的, 思辯的要素를더만히重視하야왓든것은덥지못할事實이겟다. 겔타이의理解한헤-겔도이러한範圍를버서나지못하는것이아닐가? 그리고現今에잇서서헤-겔의思想的境地가, 如何히嚴密히部分的으로硏究되야잇다할지라도그것들은, 헤-겔의全體性的發展의立場에서把握되지안엇다는點에서, 實踐的時代史的意味를亨有하지못할것이다. 勿論헤-겔은歷史的現象의形而上學的說明에滿足하지안엇다. 그런데그들은걸핏하면, 局部에拘泥하야기피穿鑿은하나그것을形而上學的으로吟味하다가마는傾向이全無하다고는하지못할줄안다. 『헤-겔』의저巧妙하고熟練한手法에잇서서도觀念論이無力, 無用한戒器가되얏슬때에는, 헤-겔은할수업시, 經濟的發展自體에呼訴하얏다. 그러나헤-겔에잇서서多少天才的인또는偶然한推測이든것이, 맑스에와서는嚴格한科學的硏究가되얏다』(註5)

씰타이의理解는헤-겔의 絶對的宗敎的眞理로서의原理는그에게永遠히무처잇다고한말에서決定的으로規定될것이다. 그리하야「헤-겔・루네쌍스」에잇서서의씰타이의課題는爾餘의生의哲學에잇서서또한作用하고잇는것이다. 『피히테, 쉘링그가導入하려한칸트體系의最高의完成으로서의絶對我의哲學은, 獨逸에잇서서革命的精神을産出하리라. 原理는旣히存在하야잇다. 다만그것을普遍的으로만들고, 그리하야從來의知識에適用하는것이必要하다.』(註6)라고한씰타이의말은充分히 「헤-겔・루네쌍스」에서云謂하는그의地位를表明할것이다.

씰타이의헤-겔의「客觀的精神」의變改와그의構造心理學을, 繼承하야發展식힌사람은「에드와드・스푸랑거」(1882-)이다. 그도헤-겔에게影響을바덧다. 그의體系的인人格構造의發展型(Entwicklangstypen von persöulichkeitsstrukturen)은헤-겔에서發足한것가트다. 헤-겔의「精神의哲學」이그의生活의形式(Ledensformen)에나타난것을또한이저서는안될것이다. 그리하야스푸랑거는, 우리가 「헤-겔・루네쌍스」라고일컷는運動의重要한一

部分을-設使그가部分的으로는헤-겔을굿게改作하얏다할지라도-헤-겔哲學의本質的作爲의發展으로써理解하얏다. 그는, 그의硏究의헤-겔과의關連을볼뿐만아니라, 또한그는全혀다른關心과方法에서어든그의出發點에서헤-겔哲學의方向도보앗든것이다. 그리하야스푸랑거는다음과가티말한다. 『우리는모다, 릭켈트, 라든가, 씰타이의方向과合致하는現象學者라든가와, 한 개의큰고리에잇서서一致한다. 即歷史的인것(das llistorische)에잇서서의或은歷史的인것을超越한無限(das Zeitlose). 意味의王國(Reich des Sinnes)또는生成하는具象的文化에잇서서의그王國의歷史的表示, 오직主觀的인것에서客觀的妥當에로發展하는價値의理說(Theorie der Werte)等에關하야一致하는것이다. 獨逸에잇서서完成된精神哲學의現今의輪廓은나날이分明하야진다. 웨그러냐하면우리는헤-겔의遺産을우리의것으로만들랴고하고, 그리함으로因하야人間的精神이世界理解에잇서서成就한包容的全體性은우리自身의것이라고主張함으로이다』(註7)

스푸랑거의이러한主張은, 正히「헤-겔復興」의生의哲學에잇서서의面貌를彷佛케하는것이나, 그의헤-겔에잇서서의文化的, 生의哲學的一面만을抽出하야, 心理的內面的, 直接體驗的學問의唱道를씰타이와關連하야主張하는點에서헤-겔과써나기먼것이라고안할수업슬것이다.

또씰타이, 스푸랑거等과「廣義의生의哲學」안에一括할랴면할수잇는現象學의創始者「훗셀」(1859-)의 「헤-겔復興」의發展에對한「非常한影響」(레-비)의二三의理由를들면다음과가튼것이다. 即, 헤-겔反對者볼싸노와쑤렌타노의學說에依憑하는훗셀自身이全혀學問的哲學의칸트的批判-改革的情熱에鼓吹되얏다는것은매우注意할만한點이다. 換言하면, 世界觀說과싸라서宗敎的形而上學的世界觀은, 헤-겔의그것과가치, 그에게對하야는學問이아니엿다. 이것은그에依하면, 窮極的人間의滿足에나所用되는것이엿다. 그러타고이것이, 훗셀이「헤-겔・루네쌍스」를間接的이라고하드라도促進하얏다는것을否認하는것은아니다. 事實, 훗셀의心理主義와「意識의自然化」에對한論爭과, 그의純粹論理學에對한, 새基礎의賦與等은여러學者에케큰影響을누엇고, 짜러서그들의主觀的觀念論은客觀的觀念論으로轉向하게되얏든것이다. 이點에훗셀의其他의抽象論에對한反對와, 그의獨特한, 個體에잇서서一般을보는, 理念化的抽象(Ideierende Abstraktion)은, 헤-겔의槪念의理解에對하야準備的作用을하얏다. (註8)그리하야그는, 그의現象學을「事實科學」이아니라「本質科學」이라고하야, 그對象을意識의非論理的領域에서求하랴고하얏다. 個體的精神에서부터一般的精神의全境域으로發展하야서만, 「精神科學의基礎」는노여지는것이라하얏다. 그리하야그의 「本質直觀」은, 헤-겔이그의 「精神現象論」에서實行한

바로그方法과가트다. 萬一헤-겔의方法이훗셀의한것과가티, 嚴密한科學의方法에로轉移할수잇다면, 우리는그것을헤-겔哲學의發展으로볼수잇슬것이다. 웨그러냐하면, 現象學도辯證法이依存하는根本的對立을보려고하는것임으로, 그리하야이러한本質直觀이歷史的世界觀에對한興味와精神의形而上學과一致한다고할것가트면, 新헤-겔主義의諸要素는明白히될것이다.(註9)

勿論, 一般的으로考察할때는헤-겔과,훗셀에잇서서의共通되는點을집어내지못함은아니로되, 헤-겔에잇서서의歷史的契機와훗셀에잇서서의그것이果然레비의云謂하는바와가티同一한範圍에屬하는것이될는지疑問이라고하지안을수가업다. 웨그러냐하면훗셀에잇서서의, 「노에마」, 「노에시스」的契機와, 헤-겔에잇서의「對立物의統一」이一見歷史的인것을表示하는것이나, 서로그成立의契機와成立되는場所를달리함으로이다. (이點에對한學問的硏究는後日을期하지안으면아니될것이다.) 그리고훗셀과連關하야생각키는것은하이덱거(1889-)이니, 그가씰타이와, 훗셀과의中間을것고잇다고는흔히하는말이다. 하이덱거가理解하는, 存在論的辯證法的思惟가, 곳헤-겔과의關連을말할만한重要한點이라고한다면, 그것은너무早計일것이다. 兩人의思想에는根本的差異가잇는것이아닐가. 더구나하이덱거의 「無」와 「關心」에對한哲學的方法의中心思想은, 헤-겔에잇서서보다도더스코라的이고싸라서, 歷史的事實에對한理解의缺乏을말하지나안을는지모른다. 헤-겔에잇서서의 「精神」과, 씰타이에잇서의 「關心」이서로그交涉하는境地를달리할것은勿論이다.

如何間生의哲學에잇서서의, 헤-겔的要素는그것이影響을주엇슴에도不拘하고, 完成된各者의哲學的形態에서볼것가트면, 헤-겔精神에서멀기다시업다. 그들은헤-겔의體系에對한驚異와憧憬에서, 힘써그것의生命的側面을攝入하려하엿스나, 畢竟은眞正한헤-겔的精神에서써나고만것이다. 「데오돌, 리트」가現象學을精神的生活의構造分析에應用하야써, 「精神의形而上學」을構成하려고한것, 그리하야그現象學이辯證法的思惟에까지이르럿다는것을볼때, 그것이얼마나反헤-겔的乃至沒헤-겔的임을몰것이다. 그의 「個人과社會」, 「我와汝」等의, 相對的對槪念을볼때, 그가 「統一에서分離를보고, 分離에서統一」을본다하드라도, 그것은以上에잇서서여러번말하여온것가치, 哲學者의獨善的境地이다. 一應文化現象과, 社會的事件의連續이說明은되리라. 그러나그說明만으로滿足하지안는것은새時代의展望이다. 「한스, 푸라이엘」(1887-)가튼니체의熱情的壓力에눌리우고, 씰타이의生命的浪漫에感激된절믄世代의사람이 「헤-겔・루네쌍스」에잇서서, 文化哲學的哲學者로出現한것을나는그自體에잇서서抹殺否定하는것이아니다. 그러한各哲學者들의獨自의境地에는, 思想的歡喜와自我充滿의世界가橫臥하는것을決코拒否하지안는다. 그러나, 푸라이엘의, 文

化의絶對目的으로서의國家觀을볼때, 우리는헤-겔의神秘한理念的國家論과가티(그의國家觀은헤-겔에서가저온것이다)그의對社會的, 本質的地位를아러채일수잇슬것이다. 또, 에른스트트뢸치(1865-1923)가헤-겔의歷史의辯證法的動態에서,「歷史의獨特한論理的秘密」을發見하얏다할지라도, 그것은그의宗敎哲學的立場에서볼것가트면, 한낫歷史의神學的解釋에알맛는것일는지모른다. 그리하야그가, 헤-겔에依한目的論的宗敎史의硏究로그러간것을보드라도, 지금까지論述하야온것가치,「헤-겔復興」에잇서서의各人의見解는, 全혀헤-겔의眞正한精神을爲한「헤-겔復興」이아니라, 各自의獨善的境地開拓에對한, 헤-겔에의歸依이라고하지안을수가업다.

以上과가티, 나는無味한論究를하야왓다. 더구나, 生의哲學에잇서서의各人의見解를나는헤-겔과의關連에서吟味하여보려고하엿스나,「헤-겔復興」一般에잇서의問題規定의困難은, 依然히그들의云謂하는헤-겔과의關係가徹底明確하지안음을表明하는事實이겟다. 레비의말에依하면헤-겔에잇서서의相對와絶對의調和가, 新헤-겔主義에잇서서如何히되얏는가는如前히問題아님은아니다.「헤-겔・루네쌍스」의널븐範圍안에屬하는哲學者들이, 다가치硏究批判한것은, 如何히하면, 絶對者를確證할수잇는가하는問題에, 一般的으로歸着될것이다. 絶對者의確證! 그것은希臘以後의數만흔哲學者들이일삼은, 놀날만한葛藏의深淵에서, 自身을더욱더욱結縛짓는, 길고긴스코라哲學的의歷史이얏다.

註1, H. Levy, a. a. O., S. 10
註2, do., a. a. O., S. 17
註3, Dilthey Schriften IV Die Jugendgeschichte Hegels S. 12
註4, H. Levy, a. a. O., S. 19
註5, 前揭, 史的一元論附錄 六十五頁
註6, Dilthey Schriften, a. a. O., S. 18
註7, H. Levy, a. a. O., S. 20
註8, do., a. a. O., S. 21
註9, do., ubenda

(附記) 쓰고보니意外에기러젓다. 아직도第三『칸트學派에잇서의헤-겔루네쌍스』가그냥남엇다. 이것은다음號로미르기로하고爲先이만擱筆한다. 同學의士의叱正을바라마지안는다.

六月五日 駱山下에서